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과학·문화

다문화 이해

교육과 미래

의사소통 능력 길러주는 교육



이지현

“왜?”라는 물음을 막아서는 안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발언하고 토론할 기회를 줘야 막힌 소통이 뚫어진다.

인간은 언어의 집에 살며 언어의 길을 따라 생각한다. 또 인간은 언어라는 끈으로 관계를 맺고 언어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서로 소통하고, 비슷한 생각과 뜻을 공유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런 언어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와 능력을 배워야 한다. 최근 최고의 관련 사례로 인해 무수한 촛불이 도도한 물결을 이루었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저 아름다운 촛불의 송고한 뜻은 막힌 소통을 뚫자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 억압과 차별로 빠진 것만 같은 격정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의 가치를 절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의 결핍은 결국 그동안 우리 교육이 소홀히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핵심은 함께 살아가는 데 소중함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허버트 마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이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 촛불은 알아듣기 쉽게 분명히 말하지 않는 까닭이 무어나고 묻는다. 훌륭한 사람은 난해한 이야기도 쉽고 간단하게 전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나 글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각각의 생각을 쉽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곳은 학교다. 쉽고 간결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려면

교사는 적절히 말을 아끼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발언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진심을 전해야 한다. 촛불은 진심을 밝혀주기를 소망한다. 무언가 감추는 듯한 이야기는 불신을 일으킨다. 왜 자신의 느낌, 생각, 의견,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까?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온전히 갖기 어렵고, 남을 추종하거나 지배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 억누르거나 억눌린 사람은 무엇이 자신의 의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으로 대접하(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밝히기를 두려워한다. 진실하고 진지한 인간을 육성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이 각각의 느낌, 생각, 의견, 주장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촛불은 기만을 성토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를 호소한다. 관련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못하더라도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누가 봐도 분명한 이야기는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다. 이쪽에서 참이라고 해도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인가를 밝혀야 한다. 사실을 말하는 인간이 되려면 학생들은 사실대로 말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게

사실인가를 진지하게 밝히는 자세를 학교에서 습득해야 한다. 넷째, 옳거나 맞는 말을 해야 한다. 촛불은 요구한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밝혀라!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면 옳은지 맞는지 제대로 드러난다. “왜?”라는 물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응답할 때에는 이야기의 맥락을 벗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내놓아서도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맥락에 맞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고집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근거 있는 응답을 주고받는 일을 끊임없이 하도록 권해야 한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서양의 가르침이나 “글은 나라의 근본이다”는 동양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에서 위와 같은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끊임없이 깨우쳐주었다.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알기 쉽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근거 있게” 말과 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이상영



벌써 6월 하순이다. 곧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찾아올 것이다. 파도가 물러오는 해변에서 색색한 비키니를 입은 S라인의 미녀들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멋있는 남자들... 우리가 상상하는 피서지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쯤 되면 누구나 고민 하나가 생긴다. '살아, 살아, 내 살이야~' 지난해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대책 없이 찌꺼기 '살'. 노출의 최대 적이다. 빼겨 나온 살들을 잘라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 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무리한 단식은 '요요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힘들지 않은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연소된다. 아무리 고강도로 운동해도 잠깐밖에 할 수 없다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만 쓰고 지방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로 살을 빼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너무 과도한 운동으로 체력을 소모해도 근육이 빠지게 마련이다.

올 여름엔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자

이렇다 보니 노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 경우를 종종 본다. 무조건 줄곧 굶기만 하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곧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한 기대감에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흔히 우리가 '살을 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이다. 단식이나 과도한 운동은 다이어트를 할 경우 체지방은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근육만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날씬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탄력 없이 축 늘어진 몸매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런 모습을 보고 '색사하다'거나 '멋지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밥을 굶게 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근육량이 감소한다. 또 우리 몸은 인위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서 더욱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

올마 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남자 환자가 한 명이 있었다. 이 환자는 활동량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정상 체중보다 10kg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본인의 의지도 확고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잘 따라왔다. 한 달 만에 10kg 감량이 성공했지만, 근육량은 유지됐고 체중 감량의 대부분은 지방이었다. 그토록 원하던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다. 흔히들 다이어트 치료를 헬빙 치료라고 부른다. 하지만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적절한 다이어트 치료로 비만에서 벗어나고 자신감도 되찾는 것은 '행복한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확한 체질검사와 과학적인 다이어트 치료로, 모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아름다운 몸매에 도전해 보자. <청연현의원 원장>

휴대기기 소음피해 심각... 공공장소에서 꼭 이어폰 사용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회사 업무로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뚜벅이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뚜벅이족을 화나게 하는 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DMB·PMP족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 어디서건 DMB·PMP 등을 휴대하고 연신 듣고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출퇴근길에서도 흔하다. 그런데 휴대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몰입해 TV나 영화를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디지털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난다. 이어폰 등으로 음악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아예 외장 스피커로 소리를 나오게 하고 듣는 이들도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는 데 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볼륨을 높여 놓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디지털 기기를 만들 때 이어폰을 꽂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렵다. 기기를 만들 때 소음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성동

기고

오병조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회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 지역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 속에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을 모아 대회 유치를 바랐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 번 도전한 러시아 카잔에게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여 어린이아이에서부터 학생, 어른

것은 번갈아서 자주 있는 일이므로 한번 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며, 지금은 실패나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잊으라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하면 무엇을 이루겠는가? 낙후된 우리 지역은 언제 발전을 이루겠는가? U-대회 유치를 못한 뼈아픈 경험을 앞으로 각종 국제 대회 유치를 이루는 밑바탕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실패는 경험, 도전은 희망!

할 것 없이 체육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시민들이 하나 되어 U-대회 유치를 지원한 위대한 광주정신을 보여준 때가 잊고서는 안 된다. 광주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실패하자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짧은 기간에 줄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당서(唐書)의 배도전(裴度傳)에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란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당 황제가 싸움에서 지고 온 배도에게 '한번 이기고 한번 지는 것은 병가에 늘 있는 일이다(一勝一敗兵家常事)'라고 한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결국 싸움에 있어서 승패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승패 후에 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구체적인 뜻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경험을 낳고 도전은 희망의 꿈을 부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다. 타 지역만 보더라도 강원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2번이나 실패를 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2번째 도전하여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번 도전해서 U-대회를 유치하였다면 좋았겠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단 한 차례의 실패를 문제 삼아 시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열기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장>

부가가치 높이는 지리적 표시제 적극 활용

경상북도 성주의 참외와 수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유명 농특산품이다. 성주 참외는 묻지도 않고 사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 호남지역 농촌에도 성주참외 못지 않은 특산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나주 배, 담양 죽세공 제품들과 딱갈비, 목포 새발나지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며칠전 경북대 연구진이 대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주참외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측정해 봤더니 15kg당 1만5천원까지도 통째로 144%나 높은 2만1천600원을 추가로 지불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그 반대로 친환경 인증 참외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 금액은 15kg당 1만 6천140원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다른 무엇보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홍보했으면 한다. 또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파는 악덕 상인, 유통업체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주기를 바란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시설

청와대·내각 개편 '국민 통합'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이어 두 번 앞에 두번이나 고개를 숙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보였다. "국민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경일과 보조를 맞춰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도 약속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쪽 불갈이를 통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비슷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

다.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와 국정쇄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성에 걸맞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이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부터 쇠신해야 한다. 학연과 지연, 인맥에 얽힌 '갑부자' '고소영' 인사에서 벗어나 국민을 아우르는 '탕평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권이 '국민 호도용'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을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국정 잘못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수학여행 버스 차령 위·변조 뿌리 뽑아라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들이 노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위·변조해 학생들의 소풍·수학여행 차량으로 제공해 왔다는 의혹(본보 4월 28일자 7면)이 검찰 수사와 사실상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화됐을 개연성이 높아 충격적이다. 광주지검은 18일 자동차등록증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위·변조해 소풍·수학여행 차량으로 제공한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 등 3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적게는 4~5대, 많게는 20~30대에 이르는 차량의 연식을 위·변조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버스 158대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무려 605차례나 위·변조해 광주 시내 152개 학교의 입학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회사는 지난 3년간 버스 31대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240차례나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

량의 연식 위·변조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 차량의 위·변조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큰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7일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제주에서의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참사도 사고 버스 차량 연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버스에 어린 청소년들의 생명을 맡겼더니 아찔하기만 하다. 수학여행 차량의 위·변조 행위는 중대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어떻게 학생들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면허취소는 물론 사업주와 운전자를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구속 기소나 벌금형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각종 차량의 연식 위·변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프로야구계가 뒤숭숭하다. 승률 7할 대로 중간순위 1위를 질주하고 있는 SK 투수 윤길현의 빈불과 욱설 파문 때문이다. 사태는 윤길현이 지난 15일 문학구장에서 8회 초 KIA 최경환의 머리 쪽으로 빈불을 던지면서 비롯됐다. 빈불을 가깝스로 피한 최경환은 11년 아래 윤길현을 향해 불쾌하다는 시선을 보냈다. '루'를 하자 투수 레이

빈불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고 나서 같듯이 싸웠다. SK는 시즌 초에도 '2루 수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산은 "SK가 주자를 방해하는 비인사적인 수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단축 선투를 달리고 있는 SK는 경기 운영

에서는 상대에게 조금의 부담도 없다. SK는 야구계에서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빈불 소동 후 '韓國 vs SK', '속물도 야구하나'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SK사태는 최근 시국이나 일상에서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즉, '잘 나갔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빈불 파장



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the editorial office and subscription rates.